

“우물보다 자립할 수 있는 힘 키워줘요”



지난 2011년 남수단 톤즈에 세운 성인 직업교육학교인 '희망의 땅'에서 청소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광희 대표. 첫 방문길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는 소년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희망의 땅고나무 제공>

해남 출신 이광희 패션 디자이너 '희망의 땅고나무' 대표

아낌없이 주는 아프리카 아이가 인생의 전환점
7년째 톤즈에 학교 건립...재봉 등 직업교육 봉사
드라마 '사랑과 진실' 원미경 의상 선풍적 인기
패션·순수미술·음악 접목...향상 새로운 시도

“하루는 톤즈 강가에 앉아 있는데 꼬마들이 생선을 잡아서 와요. 제가 장난을 좋아해요. ‘그거(생선) 나 줄래’ 했더니 망설임 없이 불쑥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먹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건기(乾期) 시즌인데... 대단하다. 정말 존다는 것, 나눈다는 것이 뭔지 꼬마에게 배운 거죠.”

패션 디자이너인 이광희(64) (사)희망의 땅고나무 대표는 지난 2009년 3월 우연한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방문길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 월드비전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혜자씨와 동행해 간 그곳에서 낭만적인 아프리카 환상이 깨졌다. 초록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황량한 오지 중의 오지였다. 구경권처럼 할 일없이 며칠을 보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소년을 보고 뭔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념품 한점 없는 시장에서 유일하게 팔고 있는 먹을거리가 눈에 띄었다. 망고나무 열매였다. 척박한 땅에 한번 뿌리를 내리면 7년 뒤에 첫 열매를 맺은 후 100년 동안 열매를 수확할 수 있고, 가꾸거나 돌보지 않아도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한 건기 때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였다.

◇ 남수단 톤즈에 희망 씨앗 뿌려=이

대표는 2010년 (사)희망의 땅고나무(이하 희망고)를 설립했다. 그리고 망고나무 심기 사업을 비롯해 ▲희망고 빌리지(남성·여성 직업교육학교) ▲희망고 유치원·초등학교 ▲성인 교육프로그램 ▲지역연계 사업(희망고 유스센터, 희망고 부녀회) 등으로 나뉘는 ‘희망고’ 사업을 7년째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톤즈 지역에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톤즈 아빠·엄마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직업교육에 중점을 뒀다. 아빠에게는 목공과 벽돌 쌓기를, 엄마에게는 재봉수업을 실시했다. 또한 부모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14년에는 유치원을, 2015년에는 초등학교를 개원했다. 지난해에는 엄마들을 위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설했다. 2개 반(40명)에서 영어와 수학, 과학, 사회, 인성수업을 한다. 유스센터에서는 청년들에게 컴퓨터와 스포츠, 뷰티 수업을 한다. 우물파기와 같은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복합적인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성공적인 롤 모델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톤즈 현지에서 이 대표는 ‘마마(엄마)리’로 불린다. 그만큼 주민들의 신뢰가 두텁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주 정부, 주민들과 먼저 상의를



하고 일을 해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톤즈 한센인마을(관자 빌리지)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주 정부에서도 인건 10만평 규모의 망고농장을 99년 임대로 제공했다. 이 대표는 이곳에 복합 문화공간인 ‘희망고 아트빌리지’를 세우기 위해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다.

◇‘해남의 성자’ 부모님 영향받아=이 대표를 이끌고 가는 두 바퀴는 ‘패션’과 ‘봉사’이다. 자그마한 몸집에도 강단있고, 에너지 넘치게 ‘희망고’를 앞에서 이끌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바로 부모님의 삶이었다. ‘해남의 성자’로 불린 이준목 목사와 김수덕 여사는 1945년 해남으로 내려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해남 등대원’을 세우고, ‘삼애 농민학원’과 ‘해남 고등 공민학교’를 열어 농촌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평생동안 헌신적인 봉사자의 삶을 사셨다.

이 대표는 1952년 해남에서 태어났다. 초등 6학년 때 광주 중앙 초등학교로 전학해 전남여중과 이화여고를 거쳐 1970년 이화여대 비서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패션에 관심을 가져 국제복장학원(현 국제패션디자인 직업전문학교)에서 패션의 기본을 익혔다. 1937년 설립된 국내 최초 패션교육기관으로 고 앙드레 김 등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들을 배출했다.

이 대표는 1985년 드라마 패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TV드라마 ‘사랑과 진실’에 출연한 탤런트 원미경이 이 대표가 디자인한 공주풍 의상을 입고 나와 장안의 화제를 모았다. 또 1988년에는 패션과 순수미술, 음악을 접목한 ‘콜라보레이션’(공동작업) 패션쇼를 선보였다. 이후에도 남들보다 앞서 새롭고, 파격적인 패션쇼를 구상하고 실행했다. 이 대표의 패션철학은 ‘안팎의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것’이다. 대통령 영부인과 정·재계 상류층 부인들의 의상을 디자인하며 이름을 날렸다. 이와 함께 20년 가깝게 패션쇼를 할 때마다 불우 이웃을 돕는 기부를 꾸준히 해왔다.

“제 주어진 시간의 90%를 ‘희망고’에 쏟아붓고 있어요. 결국 제가 왜 ‘희망고’ 일을 하게 됐는지 기본적인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나눔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소통입니다. 돈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통’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희망고 홈페이지 www.himango.org,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5-962067)

/서술=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홍진욱씨 ‘伊 국제 제작 콩쿠르-로마’ 1위

바이올린 부문...목포대 첼로 전공·파르마 제작학교 재학

목포 출신 홍진욱(41)씨는 ‘현악기의 고장’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크레모나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현악기를 만드는 ‘파르마 제작학교’(La scuola di liuteria di Parma)에 입학, 학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홍씨가 지난 22일 로마에서 막을 내린 ‘제1회 이탈리아 국제 제작 콩쿠르-로마’(1° concorso internazionale di liuteria citta' di Roma)에서 1위를 차지했다. 새 악기와 엔틱 악기 부문에 바이올린 3대, 비올라 1대를 출품한 그는 새 악기 바이올린 부문에서 수상했다. 시상식을 마친 후에는 연주회와 함께 현지에서 전시회도 가졌다.

취미로 첼로를 배우다 목포대 음악학과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학교 졸업 후 10년간은 연주활동과 음악교육에 몸담았던 그는 뒤늦게 현악기 제작에 뛰어들었다. 지난 2015년 1학년 과정에 입학한 그는 올해 10월 5학년 과정을 시작,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지금까지 제작한 악기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모두 16대.

올해 5월에는 처음 도전한 ‘제10회 이탈리아 국내 제작 콩쿠르-밀라노’(10° concorso nazionale strumenti ad arco-Milano)에서 바이올린 부문 3위, 비올라 2위, 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현악기 제작을 뒤늦게 시작했지만 훌륭한 마에스트로의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음색의 현악기를 제작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또 현악기를 통한 재능 기부와 후원도 꾸준히 진행하고 싶습니다.”

홍씨는 앞으로 2017년 체코, 슬로바키아, 로마 콩쿠르와 2018년 독일 국제현악기 제작 콩쿠르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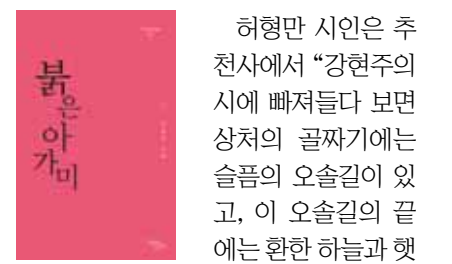
강현주 두번째 시집 ‘붉은 아가미’ 펴내

무안 출신 강현주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붉은 아가미’를 펴냈다.

지난 2013년 첫 시집 ‘달팽이의 발’을 발간한지 3년 만에 선보인 시집에서 시인은 신화적 모티프들을 통해 억압된 여성 주제를 드러낸다.

모두 50여 편이 수록된 시집에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통해 억눌린 감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세계와 자아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시를 형상화하는 시어들은 간결하면서도 미적이다. 각각의 시어에 투영된 화자의 감성은 정답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한다. 자신의 주체 의식을 정리하고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고자 시인의 내면은 상반된 감정으로 갈갈을 이룬다.



하형만 시인은 추천사에서 “강현주의 시에 빠져들다 보면 상처의 골짜기에는 슬픔의 오솔길이 있고, 이 오솔길이 끝에는 환한 하늘과 햇살의 들뜬이 있다.

바로 여기에서 강현주의 시가 마침내 꿈과 그리움과 사랑이라는 시적 성취를 이룬다”고 평한다. 한편 강 시인은 2011년 ‘열린시학’으로 등단했으며 한국문인협회 무안지부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시집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회가 22일(오후 3시30분) 무안 송달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문의 010-3601-1580. /박성천기자 skypark@

황영성·박석규·송·용·박동민·박종수·신동원·박성현·전리진·정운태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11(화) - 11.11(금)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062)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쉼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산토리니풍의 하얀 쉼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파란 동해바다~
황금빛 동화같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쉼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709실)

EQUESTRIAN	YACHT	GOLF	SKI	OCEAN WORLD	RESORT
소노벨리체 승마클럽	가제 마리나 베이	비발디파크 대중골프장(9홀) 리조트 및 4가지 유체시설	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	기암 신규회원 특별혜택	
주말 20%, 주중 40%	주말 회원대우, 주중 50%	주말 50%, 주중 무료	무료	주말, 선수가 주중 50% 비수기 주중 무료	대상 회원 요금의 50%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

포바즈 네트워크 광주점

김성훈 한의원

Yellow ID TALK @ 포바즈광주점 친구추가 하세요.

안면비대칭 턱관절장애
원다리교정 체형교정

www.epocrates.co.kr

두암타운사거리

☎(062)263-8275

NAVER 김성훈한의원 검색